

## 코스의 개념을 바꾼 태국 니칸티 골프클럽

아웃 코스 9홀, 인 코스 9홀로 구성된 18홀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태국 니칸티 골프클럽은 다르다. 6홀로 구성된 3개의 코스를 합해 18홀을 완성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왔던 골프코스와는 사뭇 다른 구성이다.

류시환 기자 | 2016-07-01 14:37:47 | 스포츠



· 의사도 놀란, '탈모개선'새까망게 짝 차..  
· 또!?, 로또 1등 친구끼리 16억 나눠가져...

RD

### INFORMATION

니칸티 골프클럽 Nikanti Golf Club

코스: 파72, 6,789야드(6홀 3개 코스)

설계: 피라폰 나마트라

개장: 2014년 12월

주소: 292/1 페타카셈 로드, 파프라톤 무앙, 니콘파툼 73000

연락처: +66(0)34395018-21

### “정말? 그런 골프장이 있어?”

언젠가 골프 라운드를 위해 찾은 골프장이 파71이라고 하자 동반자의 반응은 이랬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18홀에 파72 골프장만 보았으니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나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71, 파73 등 '다름'이 존재하는 골프 코스에 대한 골퍼들의 이해는 자연스러워졌다. 세계적인 골프코스인 페블비치와 로열카운티다운 등도 파71이라는 점이 우리나라 골퍼의 이해를 도운 것 같다.



이처럼 상식에 어긋나지만 비정상은 아닌 이색적인 코스가 있다. 골퍼들로서는 다시 한 번 '이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차례다. 바로 태국 방콕 서쪽에 자리한 니칸티 골프클럽이다. 파72인데 9홀 코스 2개가 아니다. 18홀 코스 1개도 아니다. 파3, 파4, 파5 2개씩으로 구성된 6홀 코스 3개다. 각 코스는 파24로 구성됐고, 3개 코스가 파72를 완성했다. 이전의 파72에 따른 차이는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파격적이다.



#### 골퍼의 가슴에 각인될 골프장

니칸티는 태국말로 '만족한다', '기분 좋다'라는 뜻이다. 골퍼의 눈높이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었다. 때문에 골프장 내 모든 시설에 정성을 가득 담았다. 클럽하우스는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면서도 품격을 높였다. 골퍼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골퍼 간 동선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구조를 택했다.



골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코스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구성은 독특하지만 각각의 홀을 놓고 보면 매우 재미있게 디자인 된 것을 알 수 있다. 코스의 전체적인 느낌은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들여다볼수록 공략이 까다롭다. 때문에 골퍼는 전략적이며 도전욕구를 자극하는 코스에 매료된다. 그리고 666 코스는 골퍼에게 기억에 남는 이색적인 이미지를 전하고 싶은 과정에서 탄생한 것일지도 모른다. 니칸티 워라윗 사슴섭 대표의 말이다.

“아버지는 골프를 좋아하셨다. 태국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골프 코스를 만들고 싶어 하셨다. 특히 니칸티를 골퍼가 다시 찾고 싶은 골프장이 되길 원하셨다. 그래서 클럽하우스와 코스 전체에 걸쳐 심혈을 기울였다. 모든 부분에서 골퍼에게 만족을 주려고 애썼다. 그리고 세상에 없던 이색적인 구성의 코스를 기획해 골퍼의 머리와 가슴에 각인되도록 했다.”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편집부/류시환기자 soonsoo8790@hmgp.co.kr